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테라젠이텍스(06670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이소연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30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라젠이텍스(066700)

의약품 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통합 역량을 보유한 제약기업

기업정보(2026.10.19. 기준)

대표자	고진업, 박시홍
설립일자	1990년 09월 27일
상장일자	2004년 05월 27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주요제품	의약품, 전문의약품 유통

시세정보(2026.10.19. 기준)

현재가(원)	2,095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778
발행주식수	36,683,320주
52주 최고가(원)	3,470
52주 최저가(원)	1,845
외국인지분율	2.26%
주요주주	고재훈, (주)유한양행

■ 안정적 제약사업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성장동력을 확보한 제약기업

테라젠이텍스(이하 ‘동사’)는 전문·일반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 제약기업으로,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약 200종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자체 중앙연구소와 GMP 기반 생산시설을 통해 의약품 개발·생산·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CSO 및 종합병원 자체영업과 종속회사 리드팜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판매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2025년 연결 매출액은 2,7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으며,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의 유전체 분석사업을 통해 정밀의료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제네릭 의약품 수요 확대와 제조 전문화에 따른 시장 성장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치료수요 증가, 주요 의약품의 특허만료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경구용 저분자 의약품과 심혈관질환 치료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며, 복합제형 및 고난도 제네릭 의약품으로 개발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가격경쟁 심화와 품질관리 규제 강화로 제조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의 생산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제조공정 전문성과 GMP 기반 품질관리 역량, 안정적인 공급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투자자산 재편과 제약·바이오 사업구조의 변화 추진 전망

동사는 사업구조 재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부터 항암 신약개발 기업인 메드팩토의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자기주식 469,056주에 대한 소각을 결정하였다. 또한, 제약사업에서는 다품목 의약품 포트폴리오와 GMP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신규 제네릭·개량 의약품 개발 및 수탁생산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가 인하 가능성과 제네릭 의약품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한 생산 효율성 및 수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2,164.7	13.5	111.8	5.2	283.9	13.1	18.8	11.6	59.0	807	4,240	5.5	1.1
2024	2,496.3	15.3	125.0	5.0	-392.8	-15.7	-33.1	-16.4	81.5	-1,262	3,504	N/A	0.9
2025	2,715.9	8.8	102.1	3.8	117.5	4.3	8.4	4.8	61.9	293	3,789	10.8	0.8

기업경쟁력

의약품 개발·생산·유통 통합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약연구소와 GMP 기반 생산시설, 의약품 판매·유통망을 연계하여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부터 생산·공급까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 구축
다품목 의약품 생산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기계·소화기계·호흡기계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약 200종 의약품을 공급하며, 정제·캡슐제 등의 제형 생산역량 확보
제약·바이오 복합 사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제약사업을 기반으로 종속회사 리드팜의 의약품 유통사업과 테라젠바이오의 유전체 분석사업을 병행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제네릭 의약품 제제개발 및 제조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의약품 특성에 따른 제제설계와 제조공정 관리 순환기관용제(프라빅센정·아토센정), 소화기관용제(모사피트정) 등 다양한 경구용 의약품 제조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P 기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체계를 활용하여 해열·소염진통제(아클펜정), 항생·항진균제(클레로신정, 발트란정), 호흡기관용제(엘다인캡슐, 뮤코다인캡슐) 등 생산
NGS 기반 유전체 분석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를 통해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과 생명정보학 분석기술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서비스(HELLOGENE, TOTAL OMICS) 제공

시장경쟁력

다양한 치료영역의 제품 공급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기계·소화기계 등 만성질환 치료제를 포함한 다품목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내 전문·일반의약품 시장의 다양한 처방수요에 대응
의료기관 중심의 판매·유통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CSO 영업과 종합병원 자체영업을 병행하고, 종속회사 리드팜의 의약품 유통망을 활용하여 국내 판매기반 확보
Healthy Aging 분야로 목표시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GMP 생산시설과 제조역량을 활용한 의약품 수탁생산 및 전문의약품 수출을 추진하고,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사업영역으로 다각화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품목 제네릭·개량 의약품 제제개발부터 GMP 기반 생산·품질관리까지 연계된 기술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제형 의약품 제조역량과 함께 종속회사를 통한 NGS·AI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적된 제제개발 경험과 GMP 품질관리 노하우, 유전체 분석 데이터 및 전문 연구인력이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 연구인력과 기업 부설 연구소를 기반으로 의약품 개발·생산 및 정밀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I. 기업 현황

다품목 제네릭 의약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구조 구축 및 사업영역 다각화

동사는 의약품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약 200종의 의약품 포트폴리오와 GMP 기반 생산시설, 중앙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 고재훈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13.97%이다. 동사의 주요 사업은 의약품 제조·판매와 유전체 분석 및 헬스케어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5년 연결 매출액은 2,71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하였다. 국내에서는 CSO를 활용한 의원급 영업과 종합병원 자체영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리드팜의 의약품 유통망과 수탁생산·전문약품 수출을 통해 판매경로를 다각화하고 있다. 또한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를 통해 NGS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동사는 1990년 9월 설립되어 2004년 5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 제약기업이다. 2010년 이텍스제약과의 합병을 통해 제약사업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문약품 및 일반약품의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의약품 유통, 헬스케어 및 유전체 분석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 본사와 의약품 생산시설을 두고 있으며, 제약사업에서 축적한 생산·품질관리 및 영업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인 제약사업은 소화기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해열·소염진통제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생산시설을 통한 완제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 리드팜과의 사업 연계를 통해 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문약품 시장에서 CSO 영업망과 자체 영업조직을 병행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과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종속회사인 테라젠바이오를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테라젠바이오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체 데이터 생산과 생물정보학 분석기술을 바탕으로 개인 유전체 검사, 임상 유전체 분석 및 연구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딥러닝 기반 유전체 데이터 분석과 질환 관련 유전자 변이 및 치료표적 발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유전체 분석역량을 활용하여 액체생검 기반 암 진단기술과 신항원 예측 알고리즘을 적용한 개인맞춤형 암 백신 개발 등 정밀의료 분야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표 1] 동사 종속기업 현황

사업부문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소유지분율
제약·유통	리드팜(주)	병원·약국 대상 의약품 도매 및 유통	61.31%*
유전체·정밀의료	(주)테라젠바이오	유전체 분석 용역 및 바이오 연구개발	99.24%
	북경태래건이과기유한공사	중국 지역 유전체 분석 사업	58.89%
	Theragen HK Co., Limited.	홍콩 기반 유전체 분석 사업	100.00%
헬스케어	(주)티이바이오플랫폼	유전체 분석 관련 사업	100.00%
	테라젠헬스케어(주)	의약품 판매 및 헬스케어 유통	100.00%

* 리드팜의 61.31%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유효지분율 기준이며, 단순 총발행주식수 기준 지분율은 59.84%임.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테라젠이텍스(066700)

동사는 2026년 6월 말 기준 리드팜, 테라젠바이오, 테라젠헬스케어 및 해외 유전체 분석법인 등을 포함한 6개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 제조·판매 및 의약품 유통을 통한 기존 사업기반과 유전체 분석·AI 기반 정밀의료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성장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 사업의 생산·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전체 데이터 분석기술의 고도화, 진단서비스 확대 및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을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기술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주주 현황 및 지분 구조

2026년 6월 30일 기준 동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37,152,376주이며, 이 중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는 36,683,320주이다. 2026년 6월 말 기준 최대주주 고재훈으로 보통주 3,768,754주(10.14%)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13.97%로 최대주주 중심의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분 집중도는 낮은 편이며, 유한양행이 6.74%의 전략적 주요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소액주주 지분이 60%를 상회하여 시장 유통물량 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대주주는 2025년 3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기로 기존 김성진에서 고재훈 측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현재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표 2] 동사의 주주 현황(보통주 기준)

(기준일 : 2026.06.30)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고재훈	3,768,754	10.14%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고진업 대표이사	1,124,956	3.03%	
이성숙	297,062	0.80%	
(주)유한양행	2,503,128	6.74%	5% 이상 주주
테라젠이텍스	469,056	1.26%	자기주식
기타(소액주주 포함)	28,989,420	78.03%	-
합계	37,152,376	100.00%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CSO·종합병원 자체영업을 기반으로 국내외 판매채널 다각화

동사는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다양한 치료영역의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약품 판매대행조직)와 자체 영업조직을 결합한 이원화 영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CSO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폭넓은 처방 거래처를 확보하고, 종합병원은 자체 영업인력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제품·학술정보 제공과 주요 거래처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구조는 CSO의 광범위한 의료기관 접근성과 자체 영업조직의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동사 제시자료 기준 2025년 말 처방 거래처는 약 8,200개 수준이다.

또한 동사는 자체 GMP 생산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자사 의약품 생산과 함께 외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위탁생산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제조설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약사 간 거래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전문의약품 수출도 병행하여 해외 판매경로를 확보하고 있다. 수출은 외국업체와의 직접거래 및 국내 무역업체를 통한 간접수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종속회사 리드팜을 통해 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등의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체 제조 의약품의 판매와 외부 매입 의약품의 유통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의원급 CSO 영업과 종합병원 자체영업, 수탁생산, 전문의약품 수출 및 종속회사 유통망을 연계하여 국내외 판매채널을 다각화하고 있다.

■ 사업 영역 및 매출현황

동사는 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헬스케어 및 유전체 분석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2,164.7억 원에서 2024년 2,496.3억 원, 2025년 2,715.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8% 성장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도 연결 매출액 1,377.8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다.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의약품 사업 2,568.4억 원(94.6%), 유전체 분석사업 105.5억 원(3.9%), 헬스케어 사업 42.0억 원(1.5%)으로, 의약품 제조·판매 및 유통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의약품 사업 매출액이 1,300.1억 원으로 전체의 94.4%를 차지하며 제약 중심의 매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사는 의약품 제조·판매 중심의 매출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전체 분석사업의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문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3] 동사의 매출실적

(단위 :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사업부문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반기	2026년 반기
의약품 사업	수출	22.2	24.8	30.5	15.4	10.6
	내수	1,998.4	2,324.7	2,537.9	1,263.2	1,289.5
	소계	2,020.6	2,349.5	2,568.4	1,278.6	1,300.1
유전체 분석 서비스	수출	6.2	6.1	2.5	1.8	0.4
	내수	92.6	98.1	103.0	38.8	55.4
	소계	98.8	104.2	105.5	40.6	55.7
의약외품·헬스케어	수출	2.7	-	-	-	-
	내수	42.6	42.6	42.0	20.9	22.0
	소계	45.3	42.6	42.0	20.9	22.0
합계	수출	31.2	30.9	33.1	17.2	11.0
	내수	2,133.6	2,465.3	2,682.8	1,322.9	1,366.8
	소계	2,164.7	2,496.3	2,715.9	1,340.1	1,377.8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2025.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위탁생산 수요 확대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와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치료수요 증가 및 의료비 절감 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 4,547억 달러에서 2033년 7,700억 달러로 연평균 6.5%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시장도 2024년 74억 달러에서 2033년 102억 달러로 연평균 3.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약기업의 생산 아웃소싱 확대와 제조원가 절감 수요에 따라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은 2024년 519.6억 달러에서 2033년 1,223.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성장과 경구용·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의 수요 확대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의료비 절감을 위한 제네릭 사용 확대,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5년 4,547억 달러에서 2026년 4,957억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 연평균 6.5% 성장하여 2033년 7,7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신규 제네릭 제품 출시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국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시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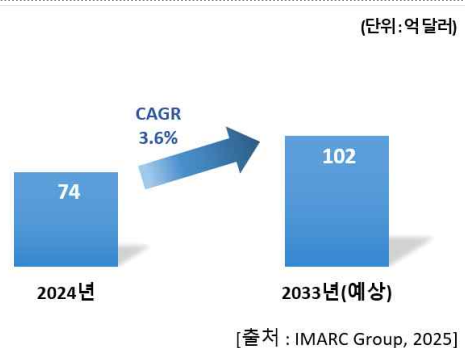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는 저분자 의약품과 경구용 제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치료영역별로는 심혈관질환 치료제가 2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 등 장기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처방수요가 주요 시장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통채널별로는 소매약국이 51.9%를 차지하고 있어 만성질환의 장기 처방수요와 약국 중심의 의약품 공급구조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치료제의 장기 처방수요 증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및 의료비 절감 정책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규모는 2024년 74억 달러에서 2033년 102억 달러로 확대되며, 2025~2033년 연평균 3.6%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제약산업의 생산기반 확대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 당뇨병 및 심혈관질환 등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은 다수 제조기업이 참여하는 분산형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일 성분 의약품 간 대체 가능성이 높아 가격경쟁이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1]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시장규모



[그림 2] 국내 제네릭 의약품 시장규모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의 확대와 생산 전문화 추세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은 제약기업의 생산 아웃소싱 확대, 제조원가 절감 및 생산설비 투자 부담 완화 등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특허만료 의약품의 공급 확대와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외부 전문 제조시설을 활용하는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SkyQuest에 따르면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은 2025년 572억 달러에서 2033년에는 1,22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26~2033년 연평균 성장률은 10.0%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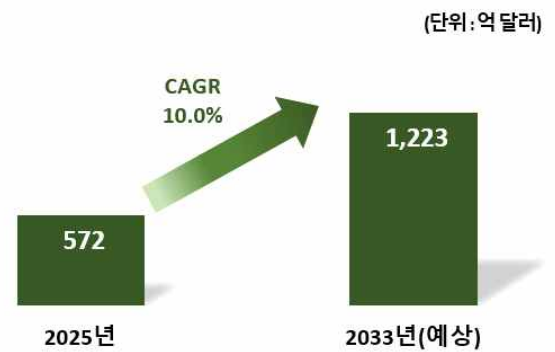
제약기업들은 외부 위탁생산업체를 활용하여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제품의 시장 출시기간 단축과 생산물량의 탄력적인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위탁생산업체는 전문 제조시설과 제형별 공정기술, 품질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생산하며, 제조공정 최적화와 생산규모 확대를 통해 원가 절감 및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확대에 따라 제약기업과 전문 제조업체 간 협력이 증가하면서 생산 효율성과 품질관리 수준이 주요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위탁생산 시장은 기존 저분자 제네릭 의약품에서 바이오시밀러와 고난도 제네릭 의약품으로 생산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생산업체들은 맞춤형 제조공정 개발, 유연한 생산규모 운영 및 제형별 생산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공정 밸리데이션과 품질보증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제조공정 최적화와 품질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다만 국가별 제조·품질관리 규제와 품목허가 요건의 차이로 인해 제조공정 검증, 문서관리 및 품질보증에 상당한 비용과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생산업체 간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제조원가 경쟁력과 안정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제형별 공정개발 역량과 품질관리 전문성을 결합한 위탁생산 서비스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림 3] 글로벌 제네릭 의약품 위탁생산 시장규모



[출처 : SkyQuest, 2026]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GMP 기반 의약품 제조기술 고도화 및 유전체 정밀의료 분야로 기술영역 확장

동사는 자체 중앙연구소와 GMP 기반 안산공장을 중심으로 다품목 제네릭·개량 의약품의 제제개발부터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형의 생산기술과 체계적인 품질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의약품 개발 및 상업생산을 추진하는 한편, 연결 기준 연구인력 34명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의 NGS·AI 기반 유전체 분석 및 신항원 예측기술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개발까지 연구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다품목 의약품의 제제개발 및 GMP 기반 제조·품질관리 기술

동사는 자체 중앙연구소와 GMP 기준에 적합한 의약품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제네릭 및 개량 의약품의 제제개발부터 품목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기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효성분과 첨가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처방 설계, 제형별 제조조건 설정, 용출특성 및 안정성 평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 의약품의 품목개발과 상업생산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순환기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등 다양한 치료영역에서 약 200종의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소화성궤양용제, 혈관확장제, 고지혈증치료제 등의 신규 품목개발과 허가를 추진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다품목 개발·생산체계를 통해 특정 의약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기존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활용한 신규 제품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 생산거점인 안산공장은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KGMP 의약품 제조시설로, 총면적 15,006㎡, 연면적 8,691㎡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해당 공장은 정제 및 경질캡슐제 등 고형제 생산관리 경험과 공정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GMP 기준에 따른 생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원재료와 완제품을 적정 조건에서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를 구축하여 원료 입고부터 제조, 보관 및 출하에 이르는 생산·물류관리 기반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제형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다품목 제조에 따른 공정 운영과 제품 공급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KGMP 의약품 생산시설



자료: 동사 홈페이지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원료의 입고검사부터 제조공정 및 완제품의 품질검사, 출하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GMP 기반의 품질관리·보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조공정과 시험방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밸리데이션(Validation), 시험·계측장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정(Calibration),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상태를 점검하는 자체감사(Self Audit)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 불만관리, 시정 및 예방조치(CAPA), 변경관리(Change Control)를 통해 품질 관련 문제의 재발 방지와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정기·수시 교육을 통해 생산 및 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PIC/S 및 ICH 관련 국제 품질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투자와 관리체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관리·보증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형과 품목에 대한 제조공정의 일관성과 제품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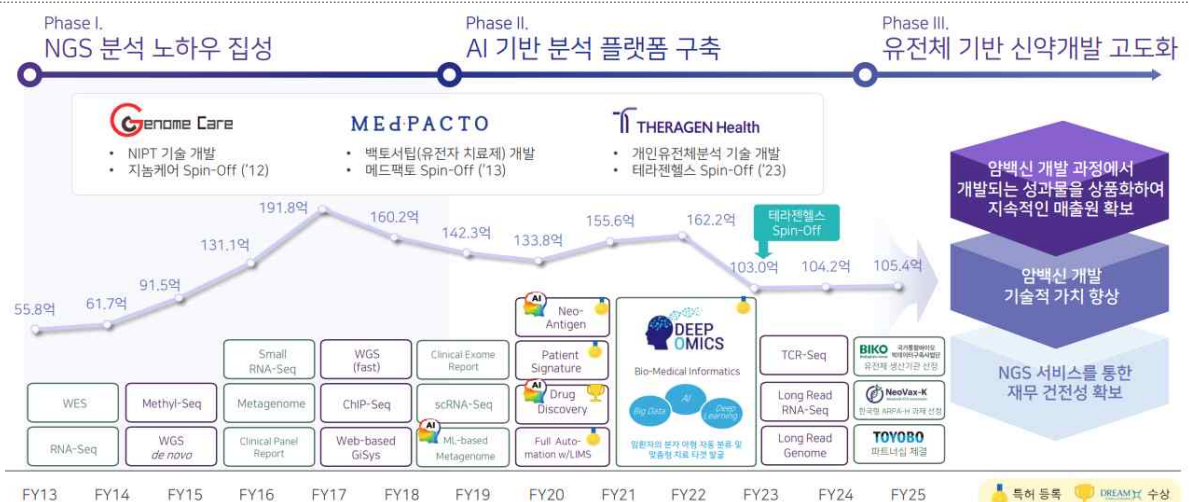
동사는 확보된 제조설비와 품질관리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사 의약품 생산뿐 아니라 외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의약품 위탁생산 영업도 추진하고 있다. 다품목 의약품의 제조경험과 GMP 기반 생산·품질관리체계를 외부 품목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생산설비의 가동 효율을 높이고, 거래 제약사와의 사업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생산시설을 활용한 신규 품목 확대와 위탁생산 병행을 통해 생산물량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제조공정 효율화와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과 공급 안정성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 NGS-AI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 및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개발 기술

동사는 기존 제약사업을 기반으로, 종속회사인 테라젠바이오를 통해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테라젠바이오는 2009년 동사의 바이오연구소에서 출발하여 2020년 5월 독립 법인으로 분할 설립되었으며,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과 AI 기반 생명정보학 기술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약 700개 의료기관과 해외 40여 개국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축적된 유전체 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NGS 기반 유전체 데이터 생산, AI·딥러닝 기반 유전체 정보 분석 및 치료표적 발굴, 유전체 기반 개인맞춤형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기술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앙 유전체 변이정보를 활용한 신항원(Neoantigen)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환자 맞춤형 항암백신 개발 플랫폼 구축(PAVE)' 과제에 선정되어 체장암 환자의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한 신항원 예측기술 고도화와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5]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기술체계



자료: 회사소개서

동사는 제네릭·개량 의약품의 제제개발과 제조·품질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를 통해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분야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결기업 차원에서 기존 의약품의 개발·생산기술과 NGS·AI 기반 유전체 분석 및 개인맞춤형 치료제 개발기술을 아우르는 연구개발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테라젠바이오의 유전체 분석 플랫폼과 신항원 예측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약사업과는 차별화된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은 현재 연구개발 단계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검증과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자체 중앙연구소와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의 바이오연구소를 중심으로 의약품 제제개발과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분야의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사 중앙연구소에서는 제네릭·개량 의약품의 제제연구, 신규 품목개발, 제조공정 개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테라젠바이오는 NGS 기반 유전체 분석, AI·생명정보학 분석 알고리즘 및 개인맞춤형 치료제 관련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연결기업의 연구인력은 총 34명으로, 동사 중앙연구소 19명과 테라젠바이오 바이오연구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별로는 박사 8명, 석사 14명, 학사 12명이며, 제약부문의 제제개발 및 제조기술 연구와 바이오부문의 유전체 분석·AI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연구소는 자체 GMP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결과를 신규 의약품의 품목허가 및 상업생산에 적용하고 있으며, 바이오연구소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상용화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분석기술을 기반으로 신항원 예측 및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동사의 최근 연구개발비는 2023년 65.7억 원, 2024년 52.7억 원, 2025년 51.6억 원, 2026년 상반기 30.3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각각 3.0%, 2.1%, 1.9%, 2.2%를 기록하여, 202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동사는 자체 중앙연구소를 중심으로 제네릭·개량 의약품의 신규 품목개발과 제제기술 및 제조공정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어를 통해 NGS·AI 기반 유전체 분석기술과 신항원 예측 및 개인맞춤형 mRNA 암 백신 관련 연구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동사는 이를 통해 기존 제약사업의 제품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연결기업 차원의 연구개발 영역을 유전체 분석 및 정밀의료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3개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단위 : 억 원,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반기
매출액	2,164.7	2,496.3	2,715.9	1,377.8
연구개발비	65.7	52.7	51.6	30.3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0%	2.1%	1.9%	2.2%

자료: 동사 반기보고서(2026.08, 2025.08)

■ PEST 분석

동사는 전문의약품 제조·판매를 주력으로 유전체 분석서비스와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규제 및 약가정책,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제약산업의 원가 부담, 정밀의료 기술 발전 등에 영향을 받는다.

- ▷ 정책·규제적 요인(Political): 국내 의약품 산업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약품 인허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정부 규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 조정과 보험급여 기준 변화에 따라 판매단가 및 수익성이 변동할 수 있으며, 제조·품질관리 규제 강화는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제조·판매 비중이 높아 약가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유전체 분석사업 역시 유전자검사 관련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에 영향을 받는다.
- ▷ 경제적 요인(Economic):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는 제약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의 경쟁 심화와 원부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은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당사는 2025년 연결 매출액의 약 94.6%가 의약품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수출 비중은 약 0.8%로 국내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의약품 수요와 판매가격 변화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 사회적 요인(Social): 국내 고령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는 순환기계, 소화기계 및 기타 만성질환 치료제의 지속적인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료의 발전은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당사는 다양한 치료영역의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의료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유전체 분석 역량을 활용한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대상 서비스 확대 기회도 존재한다.
- ▷ 기술적 요인(Technological): 의약품 산업에서는 생산공정 자동화, 품질관리 고도화 및 제형·제조기술 개선을 통한 생산 효율성과 원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NGS 분석기술과 AI 기반 생명정보학의 발전은 유전체 분석의 정확도와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분야의 기술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당사는 의약품 제조기반과 유전체 분석 역량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나, 제약사업에서는 제조원가 절감과 품질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유전체 분석사업에서는 기술 고도화에 따른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판단된다.

[그림 6] PEST 분석

➤ Political (정치)

- 의약품 품질관리·규제 대응 비용 발생
- 건강보험 약가 관리, 약가 조정에 따른 수익성 변동
- 유전체 검사 관련 규제

➤ Economic (경제)

-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확대
- 원부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
- 제네릭 시장 경쟁 심화
- 안정적인 내수 수요 확보

➤ Social (사회)

- 고령인구 증가, 만성질환 유병 부담 확대
- 개인맞춤형 의료 수요 증가
- 만성질환 치료제 수요 확대
- 유전체 분석서비스의 중장기 활용 가능성



➤ Technological (기술)

- 제약 생산·품질관리 기술 고도화
- NGS 및 생명정보학 발전
- AI 기반 정밀의료 확산
- 유전체 분석 기술의 활용영역 확대 및 기술경쟁 심화

자료: 서울평가정보(주)

IV. 재무분석

의약품 중심 외형 성장 지속과 재무구조 개선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2,164.7억 원, 2024년 2,496.3억 원, 2025년 2,715.9억 원으로 매출이 확대되며 3개년 연속 외형 성장 흐름을 나타냈다. 성장은 의약품 사업이 주도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연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 성장 기조가 이어졌다. 영업이익은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023년 5.2%에서 2025년 3.8%로 하락해 외형 성장 대비 수익성은 다소 약화되었다. 순손익은 관계기업 관련 손익 등 비경상요인의 영향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117.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다. 재무구조는 2025년 유상증자와 차입금 감소, 현금성자산 증가에 힘입어 부채비율 61.9%, 순차입금비율 0.4%로 개선되었다.

■ 핵심사업 기반의 외형 확대 지속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2,164.7억 원, 2024년 2,496.3억 원, 2025년 2,715.9억 원으로 3개년 연속 증가하였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은 2024년 15.3%, 2025년 8.8%로 나타나 성장률 자체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2023년 대비 2025년 매출이 25.5% 확대되며 외형 성장 흐름은 유지되었다. 전반적인 외형 확대는 주력인 의약품 사업이 중심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의약품] 매출은 2023년 2,020.6억 원, 2024년 2,349.5억 원, 2025년 2,568.4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전체 분석서비스] 매출은 같은 기간 98.8억 원, 104.2억 원, 105.5억 원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의약외품·헬스케어] 부문은 45.3억 원, 42.6억 원, 42.0억 원으로 2025년 소폭 감소하였다. 2025년 기준 의약품 사업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동사의 외형 성장과 실적 방향은 여전히 제약사업의 판매 흐름에 좌우되는 구조였다.

종합하면 동사의 매출은 2023년 이후 매년 확대되며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 부문이 성장하면서 매출 확대를 주도하였고,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며, 높은 생산설비 가동률로 사업기반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유전체 사업은 절대적인 매출 비중은 낮지만 수주잔고와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체 매출에서 의약품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외형 성장의 지속 여부는 주력 제품군의 판매 흐름과 생산 효율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비경상손익 부담 완화에 따른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동사의 3개년 영업이익은 2023년 111.8억 원, 2024년 125.0억 원, 2025년 102.1억 원을 기록하였다. 영업이익률은 각각 5.2%, 5.0%, 3.8%로 3년 연속 영업흑자를 유지했으나 2025년에는 수익성이 다소 낮아졌다. 2025년 매출원가는 1,305.8억 원으로 2024년 1,236.4억 원 대비 증가하였고, 판매비와관리비도 2025년 1,308.0억 원으로 전년 1,134.8억 원보다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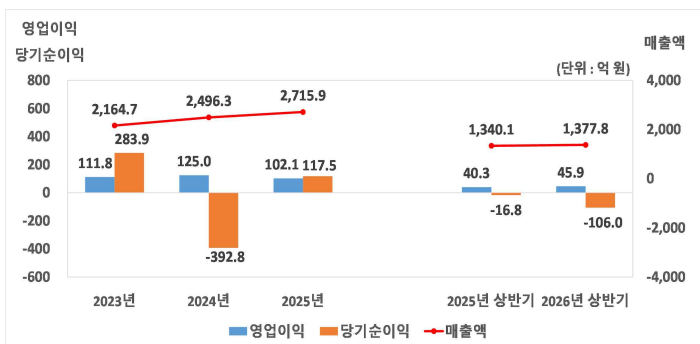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은 2023년 283.9억 원에서 2024년 392.8억 원의 순손실로 전환한 이후 2025년 117.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른 순이익률은 2023년 13.1%, 2024년 -15.7%, 2025년 4.3%로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실이 547.5억 원 발생하면서 손익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2025년에는 해당 손실이 8.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금융수익이 123.1억 원으로 확대되며 순이익이 흑자 전환하였다.

종합하면 동사는 최근 3개년 동안 영업흑자를 지속하였으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해 외형 성장에 비해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2024년 대규모 관계기업 관련 손실로 순손실이 확대되었으나 2025년에는 비경상손익 부담이 크게 완화되며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2026년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증가해 본업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이 확인되었다. 다만 금융비용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영업손익과 순이익 간 변동성은 높은 편이다. 향후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의약품 매출 성장뿐 아니라 판관비 관리와 금융비용 안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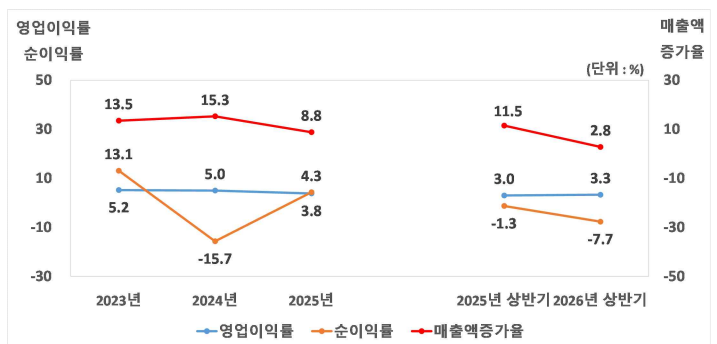
[그림 7]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추이



증가율/이익률 추이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유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자본구조 안정화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2,431.4억 원, 2024년 2,370.0억 원, 2025년 2,576.3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4년에는 자산 규모가 다소 감소했으나 2025년에는 유동자산 증가를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었다. 특히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217.3억 원, 2024년 222.1억 원, 2025년 353.5억 원으로 증가하여 단기 유동성 측면의 완충력이 강화되었다. 유동비율은 3년간 134.6%, 150.1%, 194.7%를 기록하였다.

3년간 부채총계는 2023년 902.0억 원, 2024년 1,064.6억 원, 2025년 984.6억 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23년 59.0%, 2024년 81.5%로 증가하였으나, 자본 확대 영향으로 2025년 61.9%로 개선되었다. 차입금 및 사채는 2024년 490.7억 원에서 2025년 388.1억 원으로 감소하여 부채 부담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순차입금 역시 2024년 245.3억 원에서 2025년 6.9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순차입금비율은 18.8%에서 0.4%로 낮아졌다. 이는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가와 금융상품 확보, 차입부담 축소가 동시에 진행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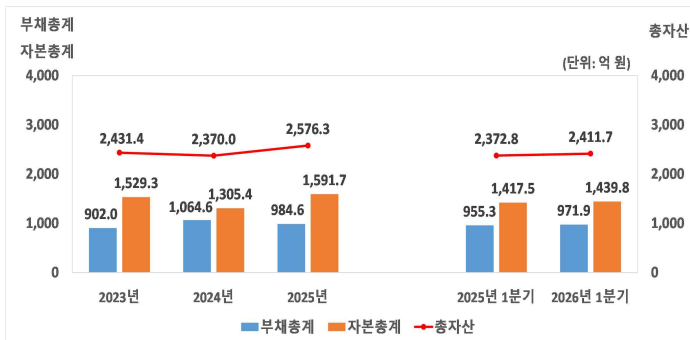
자본총계는 3년간 1,529.3억 원, 1,305.4억 원, 1,591.7억 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은 62.9%, 55.1%, 61.8%로 2025년에는 약 13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되어 자본 확충 효과도 재무구조 개선에 반영되었다.

종합하면 2025년에는 자본 확충과 차입금 감소, 현금성자산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채비율과 순차입금 비율이 모두 낮아졌고 재무완충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순차입금비율이 0.4%까지 낮아져 차입 의존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채무비율은 유동비율 178.1%, 부채비율 67.5%, 자기자본비율 59.7%로 나타났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5년 대비 증가하여 유동성 측면의 안정성은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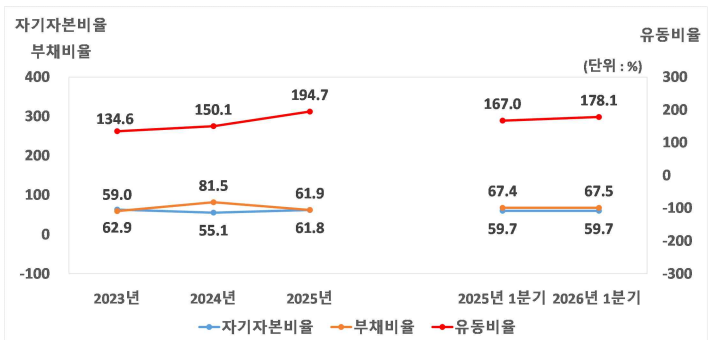
[그림 8]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산/부채/자본 비교



자본 구조의 안정성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4]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상반기	2026년 상반기
매출액	2,164.7	2,496.3	2,715.9	1,340.1	1,377.8
매출액증가율(%)	13.5	15.3	8.8	11.5	2.8
영업이익	111.8	125.0	102.1	40.3	45.9
영업이익률(%)	5.2	5.0	3.8	3.0	3.3
순이익	283.9	-392.8	117.5	-16.8	-106.0
순이익률(%)	13.1	-15.7	4.3	-1.3	-7.7
부채총계	902.0	1,064.6	984.6	955.3	971.9
자본총계	1,529.3	1,305.4	1,591.7	1,417.5	1,439.8
총자산	2,431.4	2,370.0	2,576.3	2,372.8	2,411.7
유동비율(%)	134.6	150.1	194.7	167.0	178.1
부채비율(%)	59.0	81.5	61.9	67.4	67.5
자기자본비율(%)	62.9	55.1	61.8	59.7	59.7
영업현금흐름	121.2	17.9	109.7	38.4	68.1
투자현금흐름	-137.8	-140.2	-24.1	-41.0	-15.1
재무현금흐름	50.9	125.6	46.0	65.6	-14.2
기말현금	217.3	222.1	353.5	283.3	395.2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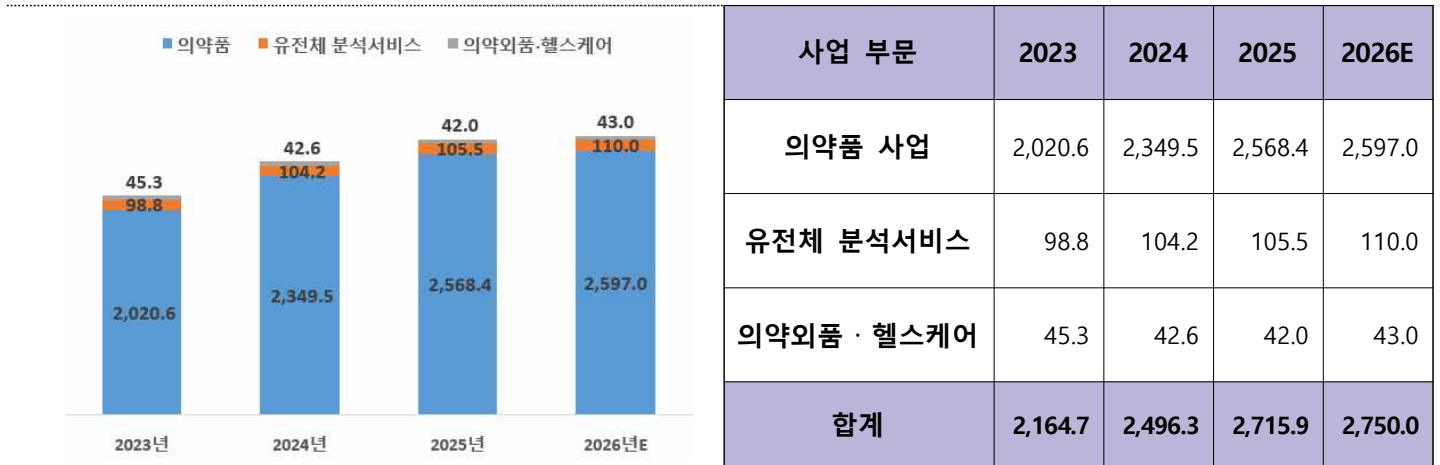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2,164.7억 원에서 2024년 2,496.3억 원, 2025년 2,715.9억 원으로 증가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만 2026년 상반기 매출액은 1,37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는데 그쳐 과거 대비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액은 과거 3개년 성장 추세를 참고하되 최근 실적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였다. 주력 의약품 사업은 기존 거래처 및 유통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여 2,597.0억 원으로 전망하였다.

테라젠이텍스(066700)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연구용역 수주 변동성을 고려하여 110.0억 원, 의약품·헬스케어 사업은 최근 매출 수준을 감안하여 43.0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한 2,750.0억 원으로 전망되며, 주력 의약품 사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외형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반기보고서(2026.08), 서울평가정보(주) 추정치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약가 재평가 대응 및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수익성·재무안정성 강화

동사는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에 따라 주요 제네릭 품목의 약가 조정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품목 생산체계와 높은 설비 가동률을 기반으로 제조원가 및 제품별 수익성 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메드팩토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사업구조 재편과 자기주식 소각 결정 등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규 의약품 개발과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해 기존 제약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의 정밀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중장기 성장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 약가 재평가에 따른 수익성 관리 강화 및 사업구조 재편 추진

최근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약가 재평가 추진은 동사의 주요 경영환경 변화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10월 보도에 따르면 동사의 1차 약가 재평가 대상은 보험제품코드 기준 116개로, 모두 서로 다른 성분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2025년 생산실적이 확인된 87개 품목의 합산 생산액은 1,562억 원으로, 전체 의약품 생산액의 76.8%에 해당한다. 동사는 다수의 제네릭 의약품에 생산실적이 분산된 구조로, 개별 품목의 생물학적동등성 자료 및 원료의약품 관련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산공장은 2026년 상반기 평균 가동률 98.33%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약가 조정에 따른 수익성 변화와 생산원가 관리, 신규 품목 확보가 주요 대응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재평가 대상 생산액은 매출액이나 실제 약가 인하 규모와는 구분되며, 구체적인 영향은 품목별 재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동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관계기업 지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지놈케어 지분 처분을 완료한 데 이어 메드팩토 보유 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9월 보도 기준 거래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사는 단순 재무적투자자보다는 신약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투자자를 중심으로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거래 성사 여부와 매각조건에 따라 투자자산 및 재무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9월 29일 보유 자기주식 469,056주 전량에 대한 소각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약 1.26%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2026년 10월 8일로 공시되었으며, 이번 조치는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향후 동사의 사업 성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신규 품목 확보와 판매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 GMP 기반 생산·품질관리 역량을 활용한 수탁생산 확대 및 전문의약품 수출 활성화에 기반할 전망이다. 다만 높은 생산설비 가동률과 약가 재평가에 따른 수익성 부담을 고려할 때 제조공정 효율화와 제품별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메드팩토 지분 매각 등 사업구조 재편의 진행상황과 종속회사 테라젠바이오의 정밀의료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연결기업의 재무구조 및 중장기 사업 포트폴리오가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테라젠이텍스(06670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네이버증권(2026.10.19)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주)테라젠이텍스	X	X	X